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에이펙스인텍(20749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펙스인텍(207490)

공공 인프라용 LED 조명 기술 기반 사업 영역 확장 중

기업정보(2026.05.26 기준)

대표자	김권진
설립일자	1997년 11월 3일
상장일자	2018년 11월 28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주요제품	LED 조명장치, 태양광발전장치 등

시세정보(2026.05.26 기준)

현재가(원)	6,6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38
발행주식수	3,600,000주
52주 최고가(원)	7,800
52주 최저가(원)	5,440
외국인지분율	-
주요주주	김권진 외 3인

■ 공공 조달 경쟁력 바탕 신재생에너지·전기안전·인프라로 확대

에이펙스인텍(이하, 동사)은 2018년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전기조명장치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설비 솔루션 기업이다. LED(Light Emitting Diode) 실외등을 핵심 사업으로 공공 조달 및 민간 프로젝트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실내등·특수조명·태양광 발전장치 시스템·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실시간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자체 생산능력, 조달 등록 제품, 특허·인증 기반 기술 신뢰성이 주요 경쟁력이며, 향후 LED 조달사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태양광발전 등 전기·에너지 인프라 솔루션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 노후 조명 교체와 스마트 조명 전환이 확대되는 LED 조명 시장

목표시장은 인프라용 LED 조명 시장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도로·터널 관리기관, 건설사, 아파트 단지 등 조명 교체 및 신규 설치 수요를 기반으로 하며, 에너지 절감, 안전성 강화, 유지보수 효율화가 핵심 수요 요인이다. 국내 LED 조명 시장은 가격 경쟁과 저가 제품 유입 부담이 있으나, 인프라용 조명은 품질·안전·인증·납품 실적이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향후 노후 조명 교체, 옥외조명 LED 전환, 스마트 조명 수요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예산 변동과 단가 경쟁은 주요 리스크로 판단된다.

■ 교통안전·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되, 반복 수주와 재무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

동사는 LED 조명 기반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교통안전 인프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 수주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차입 부담과 유동성 관리 필요성은 커진 상황이다. 향후에는 공공 조달 기반 LED 조명 사업을 유지하면서 고내구성 실외등, 스마트 조명,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안전 원격점검 등 고부가 전기·에너지 인프라 제품의 반복 수주와 수익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254.5	20.0	1.4	0.6	1.0	0.4	1.5	0.5	224.1	28	1914	250.2	3.7
2024	249.8	-1.9	-5.5	-2.2	-5.9	-2.4	-9.1	-2.6	273.2	-164	1719	N/A	3.8
2025	200.2	-19.9	-5.2	-2.6	-4.4	-2.2	-5.9	-1.6	261.1	-123	2422	N/A	2.7

기업경쟁력

공공 조달시장 대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 등록, 우수조달·신기술제품·혁신제품 인증과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에 대응 가능
전기·조명·신재생에너지 융합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 조명 제조 역량을 태양광발전, 전기안전 원격점검, 교통안전 인프라 제품으로 확장 추진 중
자체 생산 및 프로젝트 대응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생산·납품·유지보수 체계를 보유해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의 품질·납기·사후관리 요구에 대응 가능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LED 방열·광학·내환경 설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 광원의 열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고 도로·터널 환경에 적합한 배광을 구현하는 방열·광학 설계와 방수·방진·낙하방지 구조 기술을 기반으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투광등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임
교통안전형 LED 응용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소재 PCB, 면발광 구조, 이중 방수, 결로 방지, 유지보수 편의 설계 등을 적용해 지면 매립형 조명에서 요구되는 시인성·내충격성·방열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보행자 안전 제품에 적용
태양광발전 및 전기안전 감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 모듈·구조물·전기설비를 통합 설계하고 발전 상태 및 전기설비 이상 징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제어·감시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에 적용

시장경쟁력

인프라용 LED 조명시장 내 조달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보안등·터널등 중심의 공공 인프라 조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달시장 기반을 확보
노후 조명 교체 수요 대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터널·공공시설의 LED 교체 및 고효율 조명 전환 수요에 적합한 제품군 보유
신재생에너지·교통안전 시장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로에너지건축물, 분산형 전원, 보행자 안전 인프라 확대 흐름과 연계될 수 있는 확장 제품군 보유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p>가치(Value)</p>	<p>희소성(Rarity)</p>	<p>모방가능성(Imitability)</p>	<p>조직(Organiz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 조명 기반 기술, 조달 등록 제품, 신재생 에너지 및 안전 솔루션은 공공·민간 인프라의 에너지 절감, 안전성 강화, 효율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사업적 가치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인증·우수조달 제품과 공공 조달시장 납품 실적은 일정 수준의 차별성을 제공하지만, LED 조명 시장 자체는 다수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구조이므로 희소성은 제한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열·광학, 방수·방진, 보행신호등, 안전 원격 점검 등 기술은 특허와 인증으로 일부 보호되나, 조명 기술과 경쟁 구조를 감안하면 장기적 모방 방어력은 높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생산능력, 조달 영업망, 연구개발 조직, 인증 기반 제품을 통해 보유 자원을 사업화할 조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수익성 개선이 추가 과제이다.

I. 기업 현황

LED 조명 기반 공공 조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전기안전·교통인프라로 확장 중

동사는 1997년 설립되어 2018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전기조명장치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설비 솔루션 기업이다.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 LED 실외등을 핵심 사업으로 공공 조달시장과 민간 프로젝트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실내등·특수조명·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실시간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자체 생산능력, 조달 등록 제품, 특허·인증 기반의 기술 신뢰성이 주요 경쟁력이며, 향후 LED 조달사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태양광발전, 전기안전 관리, 교통신호장치 등 전기·에너지 인프라 솔루션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97년 11월 설립된 전기조명장치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설비 솔루션 기업으로, LED 조명, 태양광 발전장치 시스템, 실시간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 등을 개발·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전기조명장치 제조를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한 뒤, 태양광 발전장치, 전기안전 원격점검, 교통신호장치 등 전기·에너지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핵심 사업모델은 공공 조달 및 민간 프로젝트 수요를 대상으로 전기조명장치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급하는 구조이다. 주요 생산 품목은 실외등, 실내등,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실시간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 등이며, 목표시장은 발주처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된다.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관급 수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 민간 건설·아파트 입찰 등이 주요 매출 발생 경로로 기능하고 있다.

동사의 경쟁력은 조달시장 대응력, 인증·특허 기반의 제품 신뢰성, 전기조명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결합 역량에서 확인된다. 관급 매출 비중이 높은 동사 특성상 제품 인증과 특허 등 기술력이 중요하고, 우수제품 지정,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 혁신제품 지정 등이 공공 조달시장 진입과 구매 대상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동사는 방열을 통한 광효율 증진, 방진 구조, 광학 설계에 주력해 기술력을 축적해왔으며, 이러한 인증과 특허가 관급 및 민수 공급에서 경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LED

조달시장 내 기존 기반을 유지하면서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안전 원격점검, 교통신호장치 등 고 부 가 전 기 · 에 너 지 솔루션의 반복 수주 구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일시	내용
1997.11	법인 설립
2006.07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8.09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2018.11	코넥스시장 상장
2020.05	NEP 신제품인증서 획득
2022.10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기업 선정
2022.12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IoT, ICT 기반 도로조명설비 상시 누전 감시체계 구축)
2023.11	첨단기술제품 확인서(탄소융합소재 PCB를 이용한 LED 등기구)
2024.06	한국전기안전공사 우수시공업체 선정
2026.04	첨단기술기업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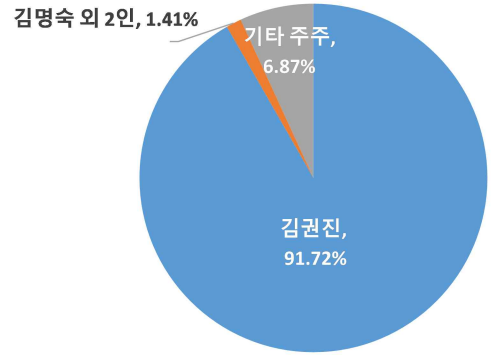
에이펙스인텍(207490)

■ 주주 현황

2025년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김권진으로, 전체 발행주식(3,600,000주) 중 3,301,772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지분의 91.7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김명숙 외 2인의 특수관계자가 50,877주(1.4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약 93.13%로 확인된다. 나머지 247,351주(6.87%)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동사는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김권진 중심의 경영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 전략 추진과 의사결정 일관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유통주식 수가 제한되고 외부 주주의 견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판단된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김권진	3,301,772	91.72%	최대주주
김명숙 외 2인	50,877	1.41%	특수관계인
기타 주주	247,351	6.87%	
합계	3,600,000	10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 영역은 크게 LED 조명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LED 조명 사업은 핵심 사업으로 실외등, 실내등, 특수조명으로 구성된다. 실외등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중심으로 도로·터널·공공시설 등 안전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인프라에 적용된다. 공공 조달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제품군으로, 판매 기반을 형성하는 주력 영역이다. 실내등은 평판조명등, 다운라이트, 램프 등으로 구성되며 공공기관, 상업시설, 공동주택, 일반 건축물의 조명 교체 및 신규 설치 수요에 대응한다. 특수조명은 LED 조명 기술을 응용한 확장 제품군으로, 태양광 가로등은 LED 조명과 태양광발전 기술을 결합하여 독립 전원 기반의 도로·공원·공공시설 조명 수요와 연결된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자에게 추가 교통신호를 제공해 안전성을 높이는 제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인프라 확산과 연계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발전장치 시스템과 실시간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로 구성된다. 태양광 발전장치 시스템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축물, 에너지 자립형 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모듈, 인버터, 구조물, 송배전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결합해 발전설비를 공급하는 구조이다. 동사는 태양광발전장치의 설계·제조·설치 역량을 기반으로 LED 조명 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성장축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내 확장 제품으로 지붕형, 벽체형, 창호구조형, 미디어형으로 구성되며, 태양광 패널에 건축자재 기능을 결합해 건축물 외피 자체가 발전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동사는 이를 통해 단순 발전설비 공급을 넘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 제로에너지건축물 대응, 경관 개선 수요까지 함께 겨냥하고 있다.

에이펙스인텍(207490)

실시간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는 전기설비의 누전, 단락, 과부하 등 이상 징후를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감시·분석하는 제품이다. 도로조명설비, 가로등·신호등, 일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요와 연계되며, 감전 및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은 정책 집행, 시범사업 확대, 발주 예산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사업으로 판단된다.

[표 3] 동사의 주요 제품 매출실적

(단위 : 억 원, %)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LED	실외등	135.8	54.6%	123.2	51.4%	132.0	66.2%
	실내등	26.5	10.6%	30.7	12.8%	30.3	15.2%
	특수조명	25.3	10.2%	18.0	7.5%	5.0	2.5%
신재생	태양광 발전시스템	44.7	17.9%	55.5	23.2%	31.8	16.0%
	전기원격 점검장치	16.6	6.7%	12.3	5.1%	0.2	0.1%
제품 매출 합계	248.9	100.0%	239.7	100.0%	199.3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영업은 기술 인증 기반의 조달형 영업과 프로젝트형 영업이 결합된 구조이다. 전기조명장치, 태양광 발전장치, 실시간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 등 다수 제품이 조달청 나라장터 우수조달 및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관급 매출과 민수 매출을 창출한다. 민간 아파트 매출은 직접 입찰 참여와 전국 아파트 입찰사이트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증 제품을 조달시장에 등록한 뒤 공공 발주처 입찰·수의계약·지명경쟁 입찰에 대응하고, 민간에서는 대리점과 직접 영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확보한다. 주요 고객군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로·터널 관련 발주처, ESCO 사업자, 건설사,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 특성상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인증, 납품 실적, 유지보수 역량, 현장 시공 대응력이 중요하다.

매출은 제품 판매와 프로젝트 납품 중심으로 시현된다. LED 조명은 조달 등록 품목의 반복 발주와 교체 수요를 기반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태양광 발전장치 및 원격점검장치는 특정 프로젝트와 정책 수요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설계·생산·납품·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며, 이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품질관리와 사후관리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경쟁 전략의 핵심은 조달 등록, 우수조달·NEP·환경표지 등 인증 확보, 특히 기반 제품 차별화, 지역별 영업망 구축이다. 다만 LED 조명 조달시장은 다수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구조이고, 2025년 LED 조명 조달금액 기준 동사의 점유율은 1.55%로 5위 수준이다. 따라서 시장 내 지위는 의미가 있으나 독점적 지위로 보기는 어렵고, 가격경쟁과 발주 예산 변동에 따른 수익성 관리가 중요하다.

II. 시장 동향

노후 조명 교체와 스마트 조명 전환이 확대되는 LED 조명 시장

목표시장은 인프라용 LED 조명 시장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도로·터널 관리기관, 건설사, 아파트 단지 등 조명 교체 및 신규 설치 수요를 기반으로 하며, 에너지 절감, 안전성 강화, 유지보수 효율화가 핵심 수요 요인이다. 국내 LED 조명 시장은 가격 경쟁과 저가 제품 유입 부담이 있으나, 인프라용 조명은 품질·안전·인증·납품 실적이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향후 노후 조명 교체, 옥외조명 LED 전환, 스마트 조명 수요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예산 변동과 단가 경쟁은 주요 리스크로 판단된다.

■ 인프라용 LED 조명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공공·민간 인프라용 LED 조명 시장으로 정의된다. 이는 단순 LED 전등 또는 일반 소비자 조명 시장이 아니라, 동사의 실제 매출과 직접 연결되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투광등, 경관조명, 실내 공공시설 조명, 태양광가로등,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인프라형 조명 제품의 수요 시장을 의미한다.

수요 발생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고, 공공부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로·터널 관리기관, 공기업 등이 노후 조명 교체, 신규 도로·터널·공공시설 구축, 에너지 절감, 안전성 개선, 빗공해 저감 등을 목적으로 발주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건설사,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산업시설 등이 신규 건축물 조명, 기존 조명 교체, 경관조명, 주차장·공용부 조명 수요를 형성한다. 2025년 LED조명의 공공부문 조달금액은 약 7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조달 기반 LED 조명업체의 핵심 수요 기반으로 볼 수 있다.

시장 구조는 다수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분산형 조달시장 성격이 강하다. LED 조명장치 제조업은 중소기업 중심 경쟁구조를 보이며, 실내외 등기구 제품군의 차별화 폭은 제한적이나 인증, 납품 실적, 품질 신뢰성, 가격 경쟁력, 사후관리 역량이 수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입장벽은 원천기술보다는 조달 등록, 인증 취득, 규격 대응, 납품 레퍼런스, 유지보수 역량에서 형성되는 시장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반 LED 조명시장이 보급 확산 이후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단가 하락과 경쟁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가격 및 수익성 측면에서는 구조적 부담이 존재한다. LED 조명의 가격 하락,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인증 관련 비용 부담이 시장 저해요인으로 지목되며, 공공·민간 인프라용 LED 조명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과 원가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공·민간 인프라용 LED 조명 시장은 일반 소비자 조명보다 품질·안전·내구성 요구가 높다. 도로, 터널, 보행자 안전시설, 공공건축물 조명은 고장 발생 시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어 광효율, 방열, 방수·방진, 눈부심 저감, 유지보수 편의성, 장기 신뢰성이 중요하다. 동사의 LED 가로등·보안등·터널등은 이러한 인프라 수요에 맞춰 광학 설계, 방진·방수 구조, 유지보수 편의성, 터널 조명 기준 대응력을 갖추고 있어, 동사의 기술 포지션은 목표시장의 요구와 일정 부분 부합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목표시장에서는 공공 인프라의 고효율 조명 전환이 지속되고 있다. LED 조명은 기존 조명 대비 전력소비와 유지보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가로등·터널등 등 옥외조명의 LED 교체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가로등·터널등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한 동사에 중장기 수요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에이펙스인텍(207490)

초기 LED 조명 시장은 백열등·형광등 대체와 신규 보급이 성장을 견인했으나, 보급률이 높아진 이후에는 기존 LED 제품의 수명 도래, 성능 개선, 고효율 제품 전환, 스마트 제어 기능 추가가 주요 수요 요인으로 부상하여 교체 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이 진행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14~2016년 설치된 LED 조명이 수명 도래 구간에 진입하면서 2025년 이후 교체 수요가 LED 조명 시장의 주요 견인력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 신규 설치보다 유지보수, 성능개선, 재조달 수요가 중요해지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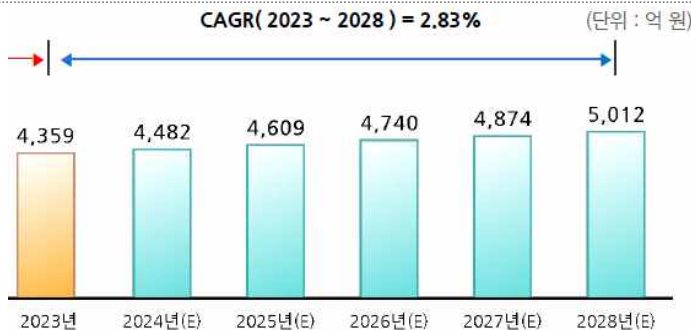
LED 조명 산업은 IoT,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5G 등 기술과 결합해 원격 제어, 자동 조정, 장면 설정, 스마트 빌딩 연동 등으로 발전하며 스마트화와 서비스화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AI 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LED 조명을 순환경제형 디지털 모듈러 제조 및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향후 인프라용 LED 조명도 원격제어, 유지관리, 에너지 사용 최적화, 데이터 기반 관리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스마트 조명 시장은 2024년 2,508억 원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15.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옥외용 조명장치 시장은 2023년 4,359억 원에서 연평균 2.8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조달시장에서는 인증·품질 중심 경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LED 조명 시장은 제품 가격 하락과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으로 범용 제품의 차별화가 약화되고 있으나, 공공·인프라용 시장에서는 고효율 인증, 환경표지, 우수조달, 신기술제품 인증, 도로공사 적격등록 등 제도적 요건이 수주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수익성 관리와 제품 고도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목표시장의 수익성은 제조업 평균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시장 규모가 양호하더라도 단가 경쟁, 원재료 가격, 인증비용, 조달 경쟁이 수익성을 제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LED 교체·신규 수요, 옥외조명 LED 전환 정책, 기존 LED 조명의 교체주기 도래, 스마트 조명 및 유지관리 서비스 확산은 동사의 기회요인이다. 특히 동사는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 공공 인프라용 실외등을 핵심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고, 조달시장 내 일정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정책 수요와 교체 수요가 확대될 경우 수혜 가능성이 있다. 반면 리스크 요인은 국내 LED 조명 시장의 중장기 성장 둔화 전망, 저가 경쟁 심화, 인증·조달 유지 비용, 공공 예산 집행 시점 변동, 낮은 시장 점유율에 따른 가격 협상력 제한이다. 따라서 동사는 공공 조달 기반을 유지하되, 고내구성·스마트 제어·전기안전 연계 제품으로 차별화하고 민간 인프라 교체 수요까지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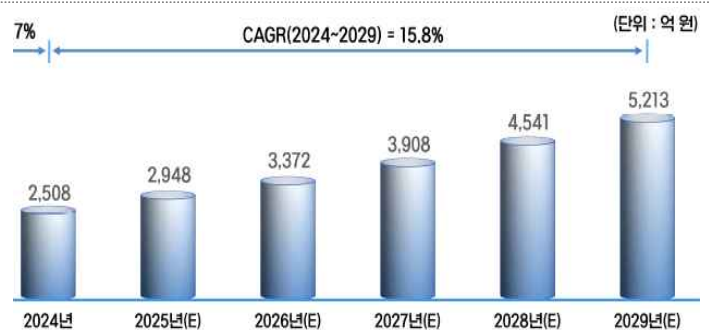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옥외용 조명장치 시장

(단위 : 억 원)



[그림 2] 국내 스마트 조명 시장

(단위 : 억 원)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공공 인프라용 LED 조명 기술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전기안전 솔루션으로 확장 중

동사는 LED 조명 제조기술 기반으로 방열·광학 설계, 방수·방진, 구조 안정성 등 공공 인프라용 조명에 필요한 기술을 축적하였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스마트 웰빙조명, 태양광가로등,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실시간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였다. 동사는 LED 조명, 태양광 발전 제어, 전기안전 감시 관련 특허와 디자인·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NEP, 혁신제품, 우수조달, 환경표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인증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 대응력과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핵심 보유기술은 LED 조명 설계·제조 기술을 중심으로 방열, 광학, 방수·방진, 구조 안정성, 전기안전 감시 기술로 확장되어 있다. 동사는 실외 조명 제품에서 LED 광원의 효율을 높이고 장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열 구조, 렌즈 설계, 회로 설계, 내환경 구조를 축적해왔다. 특히 터널등과 도로조명 분야에서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 눈부심 저감, 낙하·탈락 방지, 유지보수 편의성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며, 동사는 인프라 조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적 차별성은 단순 조명기구 제조에 그치지 않고 조명 기능과 안전·환경·에너지 기능을 결합한다는 점이다. 탄소소재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방열형 구조체, 고내구성 외함, 유리렌즈 및 스테인리스 커버 적용 등을 통해 제품 수명과 내환경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 제품으로 LED 조명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휴먼센트릭 스마트 웰빙조명은 공기정화, 살균, 생체리듬 조명, 스마트 제어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제품으로, 기존 조명 제품 대비 기능적 확장성이 높은 분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안전 분야에서도 기술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장치 시스템은 태양광 모듈, 구조물, 전기설비, 모니터링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하며,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지붕형·벽체형·창호구조형·미디어형 제품으로 확장된다. 실시간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는 전압, 전류, 누설전류 등 전기설비 상태를 감시하고 위험 징후를 원격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향후 도로조명, 공공시설, 일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요와 연계될 수 있다.

종합하면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LED 조명 제조 기반, 공공 인프라 조명에 적합한 내구·안전 설계,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안전 기술의 결합 역량으로 정리된다. 다만 범용 LED 조명 시장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동사는 고내구성 터널등, 스마트 조명, 전기안전 연계 제품, 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기술·인증 기반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동사의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자료: 동사 IR자료(2025.04),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연구개발 역량

동사의 연구개발활동은 LED 조명의 성능 개선, 공공 인프라용 제품 고도화, 신재생에너지 및 융복합 조명 제품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LED 조명 분야에서는 초슬림 LED 면조명, COB(Chip On Board) LED 기반 보안등, 저전력 가로등, 고출력 경량 LED 투광등, 터널등 고도화 등이 주요 연구개발 축을 형성한다. 기존 연구개발은 방열 성능 개선, 광효율 향상, 시공성 개선, 장수명 확보, 조립 효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특히 도로공사용 터널등, 프로빔 터널등, 압출형 가로등기구, 탄소소재 PCB 적용 터널등 등은 공공 인프라 조명시장 내 요구 규격과 현장 적용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사례로 볼 수 있다.

융복합 조명 분야에서는 스마트 웰빙조명과 공기정화·살균 조명기구 개발이 두드러진다. 동사는 LED 조명에 TiO₂ 광촉매 코팅, 공기순환 구조, 일라이트 소재, 무선 제어 기능 등을 결합해 실내공기질 개선과 조명 제어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조명 제품이 단순 광원에서 공간 관리, 환경 개선, 스마트홈 연동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방향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발전장치의 고장 감시, 접속함 화재 감시, 원격제어, 발전 손실 보정, 태양광 모듈 고정구조, 미디어 PV 조립체 등으로 연구개발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연구개발 방향은 LED 조명 제품의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는 단기 사업화형 과제와 스마트 조명·전기안전·태양광·수소응용 등 중장기 확장형 과제가 병행되는 구조이다. 연구개발 성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증 획득, 조달 등록, 현장 실증, 반복 수주, 유지관리 서비스 모델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동사는 LED 조명, 태양광발전, 전기안전, 스마트 조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포트폴리오는 LED 조명 방열 구조, 광학 렌즈, 방수·방진 구조, 터널등 안전구조, 태양광발전장치 제어, 전기안전 원격점검, 공기정화·살균 조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사의 사업 영역 확장 경로와 비교적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다.

특허권의 중심은 LED 조명 관련 기술이다. 주요 권리는 응력 분산형 림커버가 적용된 등기구, 터널 등기구용 렌즈 구조체, 낙하 및 이탈 방지형 터널등, 방열형 PCB, 탄소복합소재 LED 조명, 방수·방진 LED 모듈, 고효율 LED 구동회로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동사가 공공 인프라 조명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내구성, 광효율, 유지보수성 개선을 기술권리로 축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태양광발전장치의 최적 제어, 원격 데이터 감시, 접속반 전류 감지, 미디어 PV 조립체, 태양광 모듈 고정구조에 대한 특허는 태양광발전장치 시스템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연계된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험 감지가 가능한 전기안전 점검 장치, IoT 기반 전기안전 원격 접속 장치 검사 시스템에 대한 특허는 전기안전 원격점검 사업의 기술 기반으로 판단된다.

터널용 등기구, LED 가로등용 헤드, LED 투광등, 태양광 가로등, 바닥 및 천장형 조명기구, 스마트웰빙 천장등, 공기살균기에 대한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는 공공 조달 및 민간 프로젝트에서 제품 식별성, 외관 완성도, 구조적 차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그린루멘, APEX INTEC, 휴먼센트릭 웰빙조명, 휴먼센트릭 스마트 웰빙조명 등의 상표권을 확보하여 조명 및 에너지 관련 제품 브랜드를 보호하고 있다.

인증 측면에서는 공공 조달시장 대응에 필요한 기술·품질 인증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신기술 제품 인증, 혁신제품 지정,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지정, 품질보증조달물품 등급, 녹색기술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환경표지인증, KS 인증, ISO 9001·14001·45001 등 다수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발주에서 제품 신뢰성과 입찰 적격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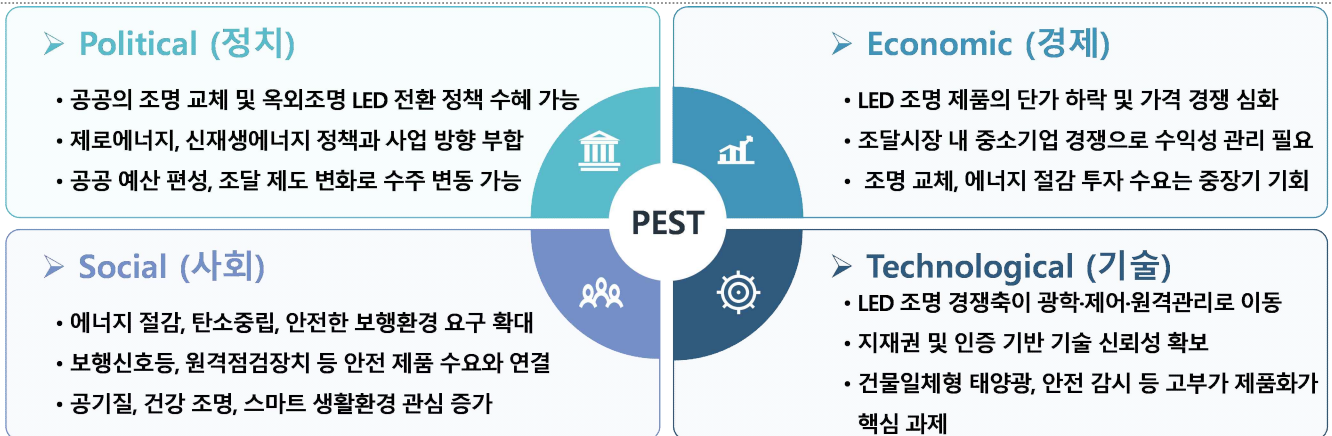
동사는 공공·민간 인프라용 LED 조명 시장을 핵심 목표시장으로 하고 있어 정부 정책과 공공 예산 집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노후 조명 교체, 옥외조명 LED 전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도로·터널·보행자 안전 인프라 확충은 동사에 우호적인 수요 기반으로 작용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전기안전 원격점검 체계 구축 등은 태양광 발전장치,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실시간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의 사업 확장 가능성을 높인다. 다만 공공 조달 중심 사업구조는 예산 편성, 정책 우선순위, 조달 제도 변경에 따라 수주 규모와 시점이 변동될 수 있어 리스크로 판단된다.

국내 LED 조명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단가 하락과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 조달시장 역시 다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분산 경쟁 구조로, 인증과 납품 실적을 갖춘 기업 간 입찰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동사는 실외등 중심의 안정적인 조달 기반을 확보했으나,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아 가격 협상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인증 비용, 설비 가동률, 발주 시점 변동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노후 조명 교체, 민간 건축물 조명 개선, 에너지 절감 투자, 태양광발전 설비 수요는 중장기 매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동사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안전 제품의 반복 수주 여부가 경제적 안정성 개선의 핵심 과제이다.

사회적으로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보행자 안전, 전기화재 예방,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도로·터널·공공시설 조명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스마트 횡단보도 확산은 교통안전 제품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실내 공기질과 건강한 조명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는 휴먼센트릭 조명과 공기정화 기능이 결합된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 다만 사회적 수요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공공 발주 확대, 민간 투자 여력, 제품 신뢰성 확보, 유지관리 편의성 입증에 병행되어야 한다.

LED 조명 산업은 고효율 광원 경쟁에서 방열·광학 설계, 방수·방진, 내구성, 스마트 제어, 원격 유지관리, 에너지 데이터 관리 중심으로 기술 경쟁축이 이동하고 있다. 동사는 LED 조명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방열 구조, 터널등 안전구조, 탄소소재 PCB, 바닥형 보행신호등, 태양광발전 제어, 전기안전 원격점검 등으로 기술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다수의 특허·디자인·상표권과 NEP, 혁신제품, 우수조달, 환경표지 등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향후 경쟁력은 스마트 조명,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안전 감시, 교통안전 설비 등 고부가 융합 제품에서 확보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술과 인증이 실질적 경쟁우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 실적, 원가 경쟁력, 반복 수주,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과 결합되어야 한다.

[그림 4]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LED조명 중심 매출 흐름 보이며 생산능력 확충 투자 진행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254.5억 원, 2024년 249.8억 원, 2025년 200.2억 원으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외형이 축소되었으나, LED조명 조달시장 내 상위권 지위를 유지하며 매출 기반은 지속되고 있다. 수익성은 2024년 이후 영업손실이 이어졌고, 2025년에는 원가율 개선에도 판관비율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재무구조는 총자산과 자본총계가 확대되었으나, 유동비율 하락과 차입금 증가로 단기 유동성이 다소 저하되었다.

■ LED조명 주력 품목의 매출 기여 및 비주력 품목 변동성 확대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254.5억 원, 2024년 249.8억 원, 2025년 200.2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9.9% 감소하여 외형 축소 폭이 확대되었다.

동사의 주요 제품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실외등] (가로등/보안등/터널용/투광등/경관조명) 매출은 2023년 135.8억 원, 2024년 123.2억 원, 2025년 132.0억 원으로 2025년 기준 전체 매출의 65.9%를 차지하며,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실내등] (평판조명등/다운라이트/램프)에 해당하는 매출은 2023년 26.5억 원, 2024년 30.7억 원, 2025년 30.3억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다. [특수조명] (태양광 가로등/바닥형보행신호등)의 경우, 2024년 18.0억 원에서 2025년 5.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신재생 부문의 [태양광 발전장치시스템]은 2023년 44.7억 원, 2024년 55.5억 원에서 2025년 31.8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실시간 전기원격점검장치]는 2023년 16.6억 원, 2024년 12.3억 원, 2025년 0.2억 원으로 축소되어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상품] 매출의 경우, 2023년 5.6억 원, 2024년 10.1억 원, 2025년 0.9억 원으로 2025년 비중이 크게 줄었다.

동사는 2025년 외형이 축소되었으나, 가로등·보안등·터널등을 중심으로 LED 조명 매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터널등, 세대등과 같은 주요 품목의 수주잔고와 조달시장 내 입지를 바탕으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신재생 부문의 매출 회복 여지가 존재한다.

■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한 연구개발비 투입 지속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1.4억 원, 2024년 -5.5억 원, 2025년 -5.2억 원으로, 2024년 적자 전환 이후 2025년에도 적자가 지속되었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0.6%, 2024년 -2.2%, 2025년 -2.6%로 하락하였다. 매출원가율은 2023년 75.0%, 2024년 76.4%, 2025년 74.5%로 2025년에 일부 개선되었으나, 판관비율이 2023년 24.5%, 2024년 25.9%, 2025년 28.1%로 상승하면서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되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8.9억 원, 2024년 6.4억 원으로 줄어든 다음, 2025년 9.0억 원으로 다시 확대되어 기술 기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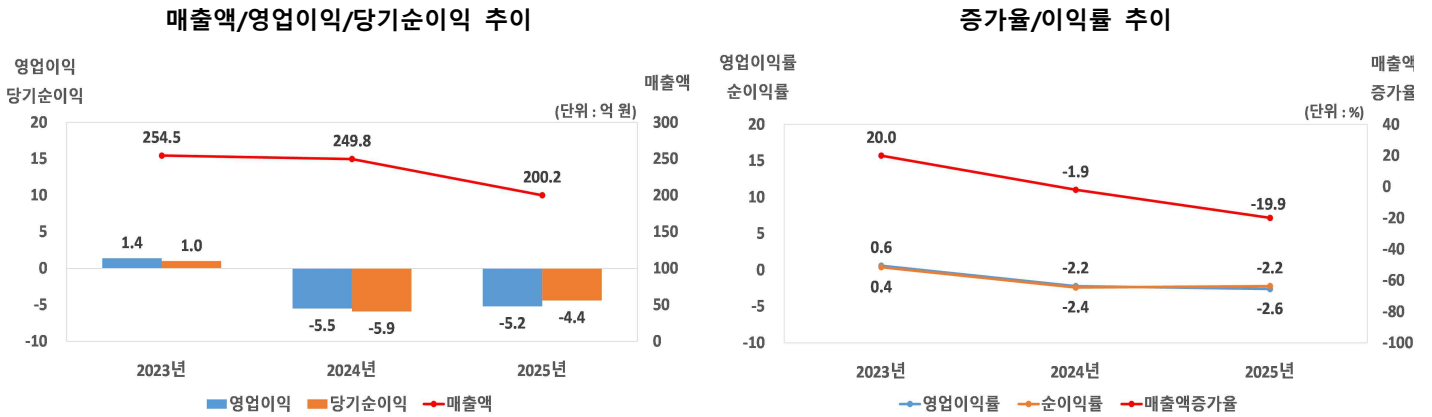
당기순이익은 2023년 1.0억 원, 2024년 -5.9억 원, 2025년 -4.4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도 순손실이 지속되었으나 2024년 대비 보상비 감소로 기타비용 부담이 크게 축소되면서 순손실 규모가 완화되었다. 반면 금융비용은 2024년 2.5억 원에서 2025년 3.0억 원으로 확대되어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나타났다.

에이펙스인텍(207490)

동사는 2025년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으며, 고정비 및 연구개발비 확대에 의한 단기 비용 부담이 존재하였다. 향후 매출 회복과 함께 판매비 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영업손실 축소와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공장 신축 투자 속 자본 보강

동사의 총자산은 2023년 223.3억 원, 2024년 231.0억 원, 2025년 314.9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35.0억 원, 2024년 16.3억 원, 2025년 17.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유동비율은 2023년 89.9%, 2024년 73.0%, 2025년 55.8%로 저하된 모습이였다. 유형자산은 2023년 78.5억 원, 2024년 114.7억 원, 2025년 199.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장 신축공사 관련 건설중인자산이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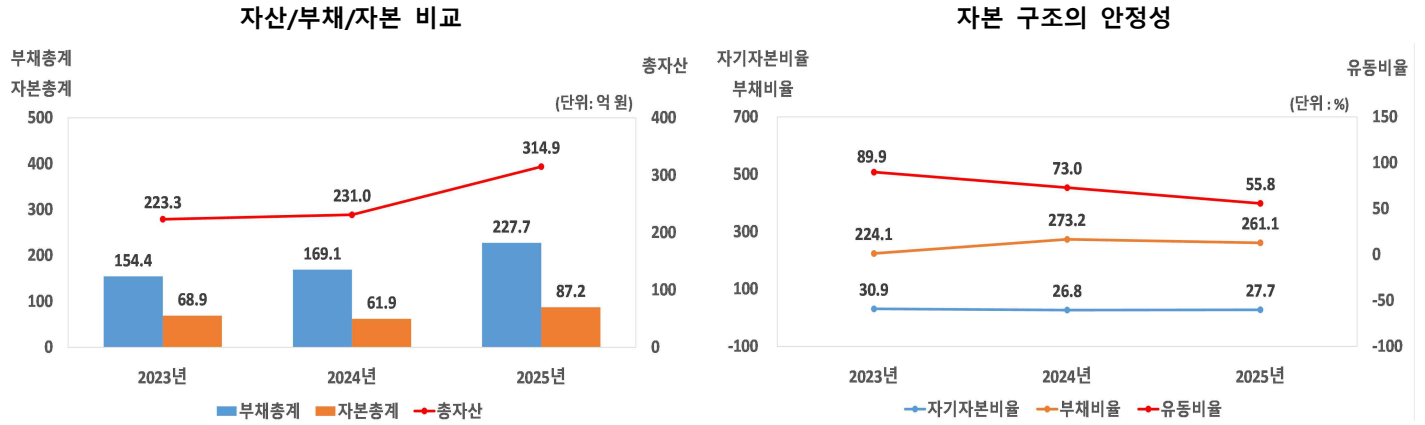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154.4억 원, 2024년 169.1억 원, 2025년 227.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부채비율은 2023년 224.1%, 2024년 273.2%, 2025년 261.1%로 2025년에는 자본 증가 영향으로 소폭 개선되었다. 다만, 단기차입금은 2024년 60.3억 원에서 2025년 97.2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장기차입금은 2024년 49.7억 원에서 2025년 67.3억 원으로 증가하며 차입 부담이 다소 확대되었다.

자본총계는 2023년 68.9억 원에서 2024년 61.9억 원으로 감소 후, 2025년 87.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 순손실에도 불구하고 토지재평가이익 30.8억 원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되면서 자본이 보강되었다. 또한 최근 3개년간 1.1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동사의 재무 구조는 자산과 자본 확대에 일정 부분 보강되었다. 다만 유동비율 하락과 차입금 증가, 공장 신축 관련 투자 부담이 존재한다. 수주잔고의 매출 전환으로 영업현금창출력이 흑자로 전환되고, 차입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무구조는 점진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254.5	249.8	200.2
매출액증가율(%)	20.0	-1.9	-19.9
영업이익	1.4	-5.5	-5.2
영업이익률(%)	0.6	-2.2	-2.6
순이익	1.0	-5.9	-4.4
순이익률(%)	0.4	-2.4	-2.2
부채총계	154.4	169.1	227.7
자본총계	68.9	61.9	87.2
총자산	223.3	231.0	314.9
유동비율(%)	89.9	73.0	55.8
부채비율(%)	224.1	273.2	261.1
자기자본비율(%)	30.9	26.8	27.7
영업현금흐름	29.4	10.0	-1.7
투자현금흐름	-27.3	-39.8	-39.6
재무현금흐름	-12.7	11.1	42.4
기말현금	35.0	16.3	17.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LED 실외등은 핵심 매출 부문으로, 일부 등락이 있었으나 2026년에는 17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외등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노후 조명 교체, 인프라 유지보수, 에너지 효율화 수요와 직접 연결되고, 동사는 조달 등록 제품과 인증 기반의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LED 실외등은 향후에도 동사의 매출 방어와 실적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으로 판단된다.

LED 실내등 매출은 소폭의 등락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2026년에 30.0억 원으로 유지가 예상된다. 실내등은 건축물 등의 조명 교체 수요와 연계되고, 실외등 대비 매출 규모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보완 사업으로 기능한다. 향후 공공시설 및 민간 건축물의 고효율 조명 전환 수요가 이어질 경우, 전체 매출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LED 특수조명 매출은 최근 3년간 크게 감소했으며, 2026년 예상 매출은 2024년과 유사한 18.0억 원이다. 태양광 가로등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특수조명은 교통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독립형 조명 수요와 연결될 수 있고, 2025년 매출 하락이 과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단기 실적 기여보다는 제품 적용처 확대와 신규 발주 확보 여부가 중요한 성장 옵션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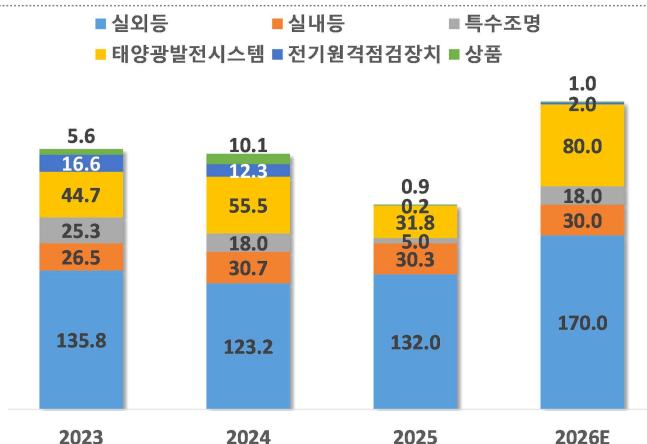
태양광 발전시스템 매출은 2025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80.0억 원으로 증가가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수요와 연결되고, LED 조명 외 주요 성장축이며,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미디어 PV (Photovoltaic system), 태양광 가로등 등으로 제품 확장이 가능하다. 다만 프로젝트성 매출 특성상 연도별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전기원격점검장치는 3년간 매출 급감했으나, 2026년 2.0억 원으로 회복 전망된다. 전기설비의 누전, 단락, 과부하 등을 원격 감시하는 안전관리 솔루션으로 정책적 필요성은 존재하나,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반복 매출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제도화, 시범사업 확대, 공공 발주 본격화가 이루어질 경우 성장 여지는 있으나, 단기 실적 전망에는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품 매출은 2026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매출이 예상되고, 중요도가 낮은 보조 매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26년 실적은 LED 실외등과 태양광발전시스템 중심으로 2025년의 저점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LED 특수조명과 전기원격점검장치는 기술적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출 기여도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동사의 향후 실적은 공공 조달 LED 조명 수주 회복,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재개, 원가 및 고정비 관리, 신규 제품의 반복 발주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력 사업 회복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병행되는 과도기적 실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7]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품목		2023	2024	2025	2026E
LED	실외등	135.8	123.2	132.0	170.0
	실내등	26.5	30.7	30.3	30.0
	특수조명	25.3	18.0	5.0	18.0
신재생	태양광발전시스템	44.7	55.5	31.8	80.0
	전기원격점검장치	16.6	12.3	0.2	2.0
상품		5.6	10.1	0.9	1.0
합계		254.5	249.8	200.2	301.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동사 제공자료(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교통안전·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되, 반복 수주와 재무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

동사는 LED 조명 기반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교통안전 인프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 수주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차입 부담과 유동성 관리 필요성은 커진 상황이다. 향후에는 공공 조달 기반 LED 조명 사업을 유지하면서 고내구성 실외등, 스마트 조명,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안전 원격점검 등 고부가 전기·에너지 인프라 제품의 반복 수주와 수익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는 2025년 3월 26일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목적에 교통신호장치 제조업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교통안전 인프라 제품을 기존 LED 조명·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역량과 연계해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현금배당 기초를 유지한 점이 특징적이다. 동사는 2025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으며, 총 배당금은 1억 800만 원이다.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고, 2026년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0.4%로, 차등배당은 해당하지 않는다. 동사는 당기순이익, 영업현금흐름, 재무구조 안정성, 향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 수준을 결정하며, 2025년 결산배당을 포함한 결산배당 연속 횟수는 8회이며, 최근 3년 및 5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각각 0.4%로 나타난다. 다만 2025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현금배당을 유지한 만큼, 배당은 단기 실적보다는 주주환원 정책의 연속성과 주주가치 유지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배당 지속성은 실적 회복, 영업현금흐름, 신공장 투자 부담, 차입금 관리 여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전망

공공 조달 기반의 LED 조명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전기·에너지 인프라 솔루션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에 동사의 전망이 달려 있다. 주력 시장인 공공·민간 인프라용 LED 조명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해 가격 경쟁과 단가 하락 압력이 존재하지만, 도로·터널·공공시설의 노후 조명 교체, 옥외조명 고효율화, 보행자 안전 인프라 확대 등은 지속적인 수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동사는 LED 조명을 중심으로 조달 등록, 인증,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 발주 대응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범용 LED 조명 제품만으로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제약이 불가피하므로, 향후에는 고내구성 실외등, 스마트 제어 조명, 바닥형 보행신호등,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전기안전 원격점검장치 등 기술·인증 기반 제품의 비중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안전 관련 제품은 중장기 성장 옵션으로 평가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분산형 전원 수요, 공공시설 전기안전 관리 강화 등은 동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은 정책 집행, 프로젝트 발주, 인허가, 초기 투자비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재무 및 운영 측면에서는 생산 인프라 확충 이후 수주 확보와 가동률 회복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설비 투자와 유형자산 확대는 향후 대형 프로젝트 대응력 강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차입 부담과 운전자금 관리 부담도 함께 수반된다. 따라서 동사의 중장기 성장은 단순 매출 회복보다 수익성 있는 수주 확보, 원가 관리, 반복 발주 구조 구축, 고부가 제품의 안정적 매출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에이펙스인텍(20749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5.2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에이펙스인텍	X	X	X